嘉泉

아름다운 샘

NO. 174
2022년 6월호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6 굿닥터
심혈관 중재시술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

07 포커스
위암, 대장암, 담도암
세 번의 암 극복한 환자

08 기획
가천대 길병원 공동 개발
무선 초음파 병원 환경 구축

10 가천대 소식
가천대학교 통합 10주년
대학 통합 성공 모델

환경부-인천광역시-가천대 길병원, 인천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개소

가천대 길병원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와 함께 운영을 맡게 된 인천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개소식이
5월 17일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6월 굿닥터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

심장을 둘러싼 세 개의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약물이나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7만명의 환자들이 스텐트 시술을 받습니다. 스텐트 시술에 대한 궁금증을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 06면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가천대 길병원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가천대 길병원 인천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개소식 제1회 인천 환경보건포럼도 개최

환경부-인천광역시-가천대 길병원 등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

가천대 길병원은 5월 17일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개소식 및 제1회 환경보건포럼'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연세대 의과대학 김창수 교수,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양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내외빈 축사와 센터 소개 순으로 개최됐다.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지역의 환경보건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환경보건에 대해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만큼 인천광역시가 전국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산학협력 기관으로서 가천대학교가 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인천지역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노출 및 건강 모니터링,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가천대 의과대학 소속의 연구자이자 의료진들이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와 함께 운영을 담당한다. 센터장은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자 국민검진센터 소장인 강성규 교수가 맡았다. 강 센터장은 현재 전세계 100여개국 노동자들의 산재예방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산업보건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제1회 인천환경보건포럼이 개최됐다. 강성규 센터장과 아주대 산학협력단 정승호 교수가 환경보건센터 계획과 수립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환경보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강성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장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와 인천시, 가천대 의대, 가천대 길병원,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참여하는 인천시 환경보건센터가 인천의 미래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생명나눔캠페인 및 전시회 개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9일까지 본관 지하1층 편의시설 구역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생명나눔캠페인과 기증 사연 전시회를 개최했다.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함께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의료진을 비롯한 가천대 길병원 임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장기이식센터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장기이식 방법과 절차 안내하고 기증자들의 사연과 수혜자들이 전하는 감사와 희망의 사연 등을 액자형태로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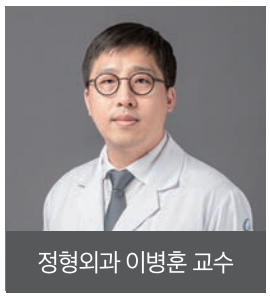
가천대 길병원,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 재관류치료는 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3면에 계속

가천대 길병원은 2019년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하고, 이번에 더 향상된 치료가 가능한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도 획득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급성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8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이병훈, 심재양 교수팀,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서 우수 구연상


정형외과 이병훈 교수

정형외과 심재양 교수

정형외과 이병훈·심재양 교수팀이 4월 29~30일 개최된 '제48차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우수 구연상(Best paper of the year)'을 수상했다. 이 교수팀은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슬개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수술적 치료의 비교우위를 검증한 다기관의 15년 추적 결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슬개골 골절의 치료 원칙을 고려함에 있어 임상적 근거를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

(주)대우기전 김성호 대표, 가천대 길병원에 의학연구·교육 활성화 기금 5000만원 기부

(주)대우기전 김성호 대표는 지난 4월 28일 의학연구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5000만원을 가천대학교에 기탁했다. 김 대표는 "평소 가천대 길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연구에 기여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은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인재양성의 밑거름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천대 의대는 올해 의학교육평가 4년 인증을 획득하고 제86회 의사국가시험에서 38명 전원이 합격하는 등 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대야초교 후배 초청 특별한 추억 선물 2박 3일간 청와대, 국회의사당, 가천대 길병원 등 탐방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은 5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2박 3일간 모교인 전북 군산 대야초등학교 후배들을 초청했다. 모교 사랑이 남다르기로 유명한 이길여 회장은 후배들에게 수도권 주요기관 탐방과 현장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23년째 매년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길여 회장에게 초청받은 모교 학생들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KBS), 가천대 길병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뇌과학연구원, 가천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꿈을 키워가는 시간을 가졌다.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여행 둘째 날 저녁에는 이길여 회장의 자택에서 즐거운 만찬을 함께 나눴다. 후배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이길여 회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꿈을 크게 가져라"고 말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여행에서 보고 배운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탄생한 새로운 백내장 수술법, 미국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도 정규 수술에 적용 쾌거

가천대 길병원 안과 남동흔 교수(사진)팀이 개발한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은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컬럼비아대학병원에서 'FDA 허가 후 임상' 형태로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도구인 챠퍼니들 끝에 조명을 삽입한 조명챠퍼를 이용한 수술로, 안과 남 교수팀이 직접 개발, 연구했다. 기존 표준수술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수술실 현미경의 매우 밝은 조명을 환자 안구에 직접 비춘다. 눈부심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뿐 아니라 망막 손상, 조명이 비추지 않는 안구 반대편의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기 어려워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남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10년 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물로, 안구 내로 삽입되는 챠퍼의 끝에 조명을 달아 수술하는 장비를 고안해냈다. 남 교수는 여러 국내외 논문을 통해 안구 내 조명챠퍼를 이용한 수술법 환자 만족도 개선, 합병증 감소 등을 입증했다. 새로운 수술법의 확산을 위해 2017년에는 벤처기업 ㈜오큐라이트를 창업해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성과물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로 이름을 붙인 새로운 백내장 수술은 임상 현장의 안과 의사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 식약처 인증은 물론 국가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인천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 가천대 길병원에 소외계층 수술비 지원

심장병 수술 환자 치료비 800만원 지원 등 꾸준한 기부

인천광역시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5월 23일 가천대 길병원에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를 기부했다.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유경진 인천본부장, 권기동 새생명돕기회 위원장, 윤미화 신성새마을금고 전무 등은 이날 가천대 길병원에서 김양우 병원장, 서향순 사회사업팀장을 만나 이웃 사랑 치료비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치료비는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에게 지원이 결정됐다. 청각장애가 있는 이 환자는 배우자 또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도 수술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의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돼 최근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지난해에도 간이식 환자의 치료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SBS「모닝와이드」(4/20)
코로나 격리 해제 후 기침증상

▶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EBS「명의」(4/22)
오미크론, 명의에게 듣는다

▶ 류마티스내과 최효진 교수

SBS「모닝와이드」(4/25)
베이킹소다가 통풍을 억제한다?

▶ 호흡기내과 강성윤 교수

SBS「모닝와이드」(4/27)
운동과 알레르기와의 관계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무엇이든 물어보세요」(4/28)
무병장수의 비밀! 종아리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경인교통방송「건강한 내일」(4/29)
1인가구 증가와 자살예방

▶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

SBS「모닝와이드」(5/9)
식초로 독소 배출이 가능하다?

▶ 심장내과 위진 교수

SBS「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5/10)
여섯 번의 심정지를 이겨낸 환자

▶ 소아심장과 안경진 교수

SBS「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5/10)
여섯 번의 심정지를 이겨낸 환자

경기일보

이제는 하이브리드 인간관계 시대

인천의 아침

이길재 기천대 길병원 외상외과교수

외상외과 이길재 교수

경기일보 [인천의 아침] 칼럼(4/11)
이제는 하이브리드 인간관계 시대

내일신문

오미크론변이 사망자 감소세로 전환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주중 발표 … "중증환자 관리-치료제 안정적 공급이 중요"

감염내과 조용균 교수

내일신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은] 의견(4/11)
사망자 발생 추이 분석

[밀당365] 불 켜둔 채 잠드시나요? 공복혈당 올라갑니다

연슬린 저항성↑

공복혈당↑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조선일보 [공복혈당 관리] 조언(4/12)
잠잘 때 조명과 당뇨병 관계

마기꾼, 마해자? 마스크 벗은 얼굴에 실망하는 까닭

마스크로 가린 얼굴, 이상형으로 채워

신경외과 김영보 교수

조선일보 [뇌의 얼굴 인식 기능] 조언(4/15)
영장류의 얼굴 인식 세포

힘들 땐 들어봐... 성격 따라 효과있는 음악 달라

외향적이면 현대 음악, 사교성 좋으면 순수 음악

노래 부르거나 연주하면 효과 더 커져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

조선일보 [성격에 따른 음악 효과](4/22)
음악을 통한 신경계 활성화 효과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영상 바로보기

혈당측정 어디까지 해봤니? 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 완전정복!

당뇨병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자신의 혈당! 슬기로운 혈당관리의 시작은 정확한 측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가혈당측정기를 비롯해 채혈검사, 요당검사 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간질에 삽입된 센서를 통해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당을 검출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당뇨환자 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휘 교육간호사와 당뇨내분비센터 김병준 교수가 직접 시연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과 관련 궁금증을 알아보아요~

당뇨내분비센터 | 김병준 교수, 김선휘 교육간호사

- **진료분야 :**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 골다공증
- **약력 :** 미국 국립보건원 노화연구소(NIH/NIA) 연수

영상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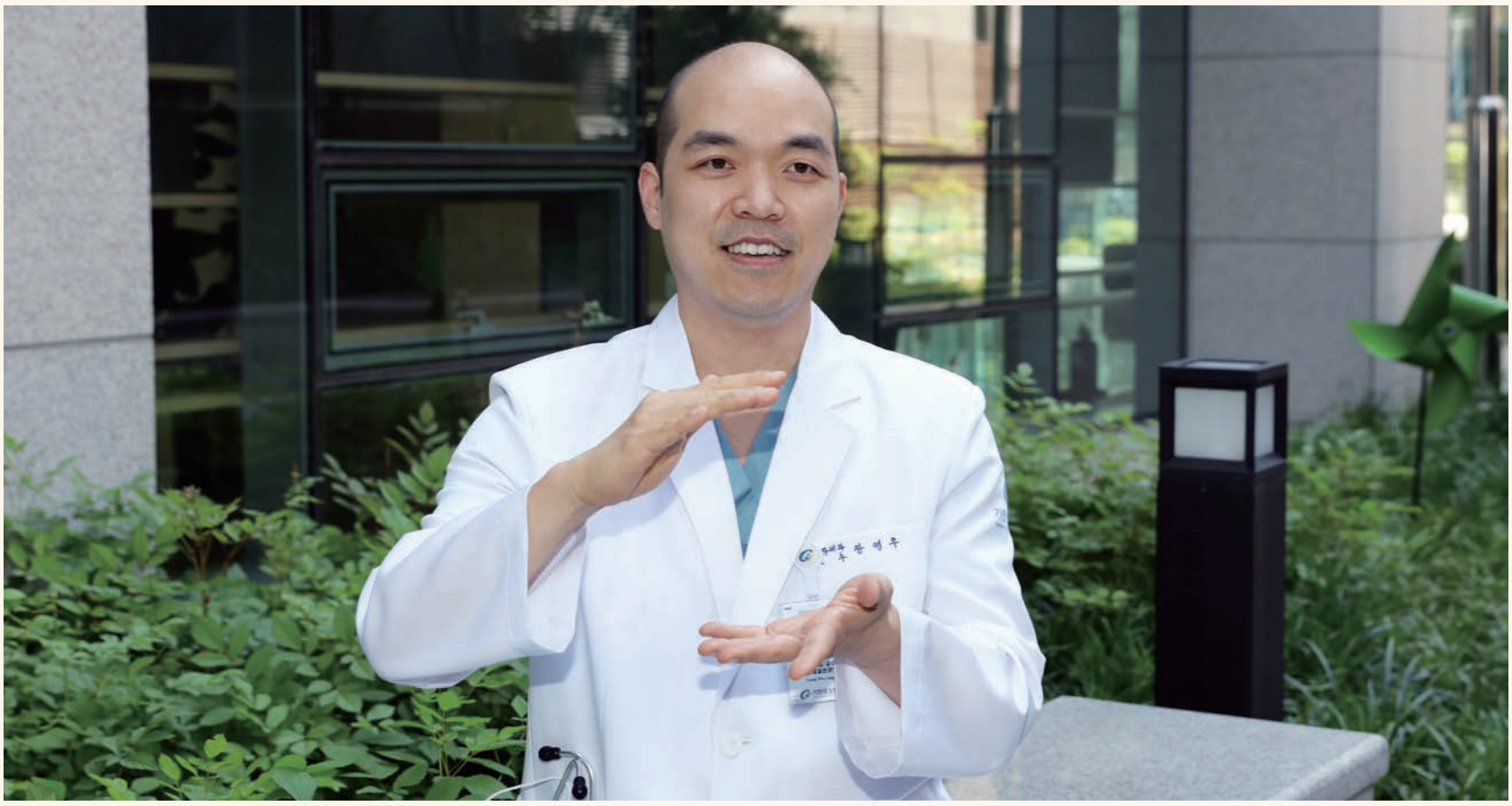
우울증! 잘 걸리는 위험군이 있다?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생물학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우울증! 우울증은 생각과 감정뿐 아니라 신체와 행동 변화 등 전반적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신체에 생기는 질환은 위험군을 확인하고 예방관리 하는데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경우, 위험군을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예방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입니다. 우울증 극복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

- **진료분야 :** 우울증, 조현병, 자살, 기질성 정신장애
- **약력 :**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

"스텐트 시술은 시술 후 약물 복용 중요... 재발 줄이기 위해 습관 개선해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이 혈관들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손상되는 심근경색과 혈관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협심증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Q1 심장에 금속을 넣는 스텐트는 부담스러운데, 약물로는 치료가 안될까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시술 말고 약물치료를 하고 싶다'고 시술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십니다. 급성심근경색 등 최대한 신속하게 혈관을 뚫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는 의료진들이 스텐트와 약물치료 중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보다 스텐트 시술의 효과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담갖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Q2 스텐트 시술은 국소마취를 한다는데,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스텐트 시술을 하는 의료진들은 시술 중에도 환자의 호흡, 통증 정도 등 환자의 반응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치료경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신마취에 따르는 위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술 전 환자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있지만, 걱정만큼 시술이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Q3 스텐트 시술 후 다른 부위 혈관이 막히면,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스텐트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수보다는 스텐트의 총 길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텐트의 총 길이가 길어질수록 재협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시술은 가능하기는 하나, 최대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4 스텐트 후 해당 부위가 재발이 될 수도 있나요.

스텐트가 혈관에 삽입되고 나면, 혈관이 자극되고, 세포가 증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새 살이 자라 다시 혈관이 막히는 재협착률도 1~15%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되는 스텐트는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 코팅돼 있어 재발률을 낮추고 있긴 하지만, 환자분들은 6개월~1년 정도는 고지혈증약과 아스피린 복용을 반드시 하셔야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5 스텐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스텐트에도 사용연한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스텐트 시술은 급속하게 발전을 해왔고, 최근 시술하는 스텐트들은 새 살 증식을 억제하고 재협착을 막아주는 약물 억제제가 코팅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시술을 하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혈관이 막히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다시 막히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거나 혈관이 막힌 경우라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

▶ **진료분야 :** 심혈관 중재시술,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폐고혈압, 심방세동 등

▶ **약력 :** 대한중재시술학회 정회원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학술이사
심장학연구재단 연구비 선정

위암, 대장암에 이어 말기 담도암까지 세 번의 암 모두 이겨낸 사연, 암환자들에 희망

위암, 대장암, 담도암 등 한번도 겪기 힘든 암을 세 차례나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환자는 치료가 어려운 담도암 말기 진단 후 5년 만에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기적'에 가까운 성과는 면역항암제 등 적극적인 치료와 '의료진-환자-가족'이 한마음으로 치료에 매진한 결과다.

위암, 대장암으로 수술 후 완치 10년 만에 담도암 진단

사연의 주인공은 인천에 거주하는 주정자(64세)씨로, 그는 2007년 대장암과 위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 다행히 모두 조기에 발견했지만 위와 대장 일부의 절제가 불가피했다. 주씨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우측 대장절제술과 위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주씨는 "평소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암이 두 개나 발견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술 후 10년이 지난 2017년 6월 주씨는 피로, 팔 통증, 복부 통증 등 몸에 이상을 느꼈다. 집 근처 내과에서 소화제를 처방받아 먹다가, 계속되는 팔과 어깨 통증으로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다. 주씨는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해서 농담처럼 '또 암이라도 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며 "10년 전과 달리 무섭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저 앉아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2017년 담도암 4기 진단... 수술+항암 치료 후 5년 완치 기적

가천대 길병원 외과를 방문해 정밀검진 결과, 주씨는 간내 담도암 4기로 진단됐다. 우측 간 13cm 크기의 커다란 암덩어리와 간내 다발성 전이 소견, 종격동(양측 폐 사이), 복부, 림프절 등 광범위한 전이도 확인됐다. 담도암 4기로 표준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매우 드물다.

주씨는 커다란 암덩어리로 인한 통증 감소, 간기능 보존 등을 위해 진단 후 곧바로 우측간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남아있는 암진행 억제를 위해 표준 항암치료를 시행했지만 림프절 등에 남아 있는 종양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크기가 커졌다. **종양내과 심 교수는 주씨와 그의 아들들과 소통하며 치료 방법을 찾아나갔다.** 2차 항암치료를 결정하고, 9월부터 약 6개월간 항암 치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상태로 시간을 견뎌냈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는 항암제 내성으로 암이 다시 커지면서 주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심선진 교수의 고민도 깊어졌다. 당시 국내 도입 초기였던 면역항암제(키트루다)를 고려해볼 수는 있었지만 높은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었다. 면역항암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에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유전자 변이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심 교수는 "더 이상의 표준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예상 생존율은 3~4개월에 불과해 안타까운 상황에서 환자의 두 아드님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고 적극적으로 면역항암제 치료 의사를 밝혀와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한번 시도해보자'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최고의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2018년 7월부터 면역항암제 치료를 시작한 주씨는 기적적으로, 4개월 후인 10월 CT 검사에서 암세포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그러던 2019년 10월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다. 주씨는 간문맥 폐색으로 인한 소장정맥류 출혈로 응급실로 실려왔다. 외과 김두진 교수가 신속하게 원인을 발견하고 출혈 치료를 위해 문맥스텐트 및 정맥류 색전술을 시행했다. 김 교수는 "환자의 빈혈 원인이 내과적 요인이 아닌 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술한 덕분에 빈혈도 완치가 됐다"고 말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여러 차례의 고비 끝에, 주씨는 최근 진료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2017년 6월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 암세포는 모두 사라졌고 주씨 또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 주씨는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삶을 비관하지 않고 "몸에 좋다는 음식보다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보약이라 생각하고 챙겨먹으면서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가천대 길병원 심선진 교수, 주정자님, 김두진 교수 (좌측부터)

△ 종양내과 심선진 교수

△ 외과 김두진 교수

가천대 길병원-힐세리온, 세계 최초 무선 초음파 병원환경 구축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초음파 영상 진단 가능

△ 힐세리온 소논 400S

△ 진료실에서 무선초음파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정욱진 교수

△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수술 중 태아 위치를 무선 초음파로 진단하는 김석영 교수

'청진기'는 의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다. 소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휴대가 용이하지만 초음파 진단과 같은 영상 진단은 불가능하다. 휴대도 가능하고 초음파 기기처럼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가천대 길병원은 **'보이는 청진기'인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진단 환경을 지난 2년에 걸쳐 구축**했다.

무선 초음파 환경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인 류정원 대표가 설립한 주식회사 힐세리온이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가천대학교 심혈관연구소장)를 비롯한 많은 가천대 길병원 전문 의료진과 함께 연구 개발한 무선 초음파 진단기 시스템 '소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원 내 무선망 이용... 2년간 1440건 무선초음파 시행

소논은 임상 현장 초음파(POCUS, Point-of-care ultrasound)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진단 장비는 크기, 장비 등의 문제로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주로 환자들이 '초음파실'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형태다. **소논은 휴대가 가능하고, 의료진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해 진료실, 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병원 내부 어디에서나 초음파 진단이 가능**하다. 진단 결과는 병원 내 무선 와이파이망을 통해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에 전달할 수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힐세리온과 소논을 공동개발했다. 또 소논의 장점을 진료현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 무선 초음파 진단환경을 구축했다. 지난 2019년 소논 110대를 22개 임상과에 도입해 무선 초음파 환경 구축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논을 활용, 지난 2년간 1440건을 시행했다. 특히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피부과 등에서의 진단과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으로 경쟁력 향상 '기대'

가천대 길병원은 힐세리온과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여러 국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현장 진단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 개발에 앞장서 왔다.

현재 가천대 길병원과 힐세리온은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등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각각 책임기관이 돼 '뇌졸중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혈류진단 패치'와 '현장진단용 심전도 연동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개발과제를 수행중이다.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휴대용 무선초음파가 청진기를 대신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시술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가천대 길병원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통해 초심자들도 손쉽게 초음파 진단과 결과를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고객의 소리

고객이 칭찬한 당신을 칭찬합니다

고객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우리병원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동과 친절을 선물한 우리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수많은 감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객의 소리는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산부인과 이광범 교수

지난 4월 시어머니께서 이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이광범 교수님을 비롯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걱정 말라고 말해준 이경아 간호사 덕분에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어머니도 이제는 길병원의 팬이 되었다며 좋아하십니다. 정OO님

마취통증의학과 최정주 교수

항상 미소로 대해주신 최정주 교수님을 비롯해 서미나 선생님, 김관영 선생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을 때 통증이 심했는데 퇴근시간이 지나고까지 웃으며 진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모두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OO님

신장내과 이현희 교수

부모님께서 이 교수님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상태가 안좋아지면서 입원을 하게 됐고,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병실에 오셔서 환자를 봐주시고, 컨디션은 괜찮으신지 살펴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자가 교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새생명을 얻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OO님

호흡기내과 박정웅 교수

박 교수님은 친절하시며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셔서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박 교수님만 같다면 자세한 설명만으로도 환자의 병이 30%는 나을 것 같을 정도입니다. 오늘 진료 전,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왔는데 박 교수님을 만나 뵙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 갑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OO님

통합내과 라한나 교수

라한나 교수님과 면담하고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운동도 자꾸 강박이 되어서 잘 안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해소창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조언대로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속에 감쳐뒀던 마음을 꺼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치료 하는 동안 잘 쉬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드리고, 교수님도 건강하세요. 임OO님

고객의 칭찬

진료부 I **마취통증의학과** 이경천 **비뇨의학과** 안영훈 **산부인과** 김석영, 이광범, 전승주, 안선아(전공의) **신장내과** 이현희 **안과** 김정훈, 김진수(전공의), 김하람(전공의), 박주예(전공의) **외과** 박흥규, 이준협 **재활의학과** 나하은(전공의) **정형외과** 김시훈(전공의), 문도현 **치과** 심우철(전공의), 양대승(전공의), 윤수빈(인턴), 전소영(인턴), 전택근(인턴) **통증센터** 김관영(전공의), 최정주 **통합내과** 라한나 **호흡기내과** 박정웅

간호본부 I **A108W** A108병동, 김보라 **A148W** A148병동, 김민영 **A158W** 구가영, 나지원, 서옥경, 신혜정 **A168W** 서한솔, 이아름, 장수정 **A88W** 성수경, 이정해, 주득남 **A98W** A98병동, 박혜정, 안윤정 **C10BW** C10B병동, 권숙희, 이숙자 **C9BW** C9B병동, 김민지 **I106W** I106병동, 문윤지, 선예지, 심채영, 이혁 **I116W** I116병동, 송민지, 장은빈 **I136W** 배예은 **M6W** M6층병동, 박다슬, 이유나, 조유진 **MDR** 김가은, 박세진, 분만실, 이종희, 한은정, 허유진 **NSICU** 김진아 **R10W** 고유정, 백재준, 최은진 **R7W** R7층병동, 김경주, 김미리, 박주환, 배순일, 신유라 **R8W** 오총명, 이윤나 **R9W** 김민정, 유미희, 이지은 **SICU** 외과계집중치료실 **VIP/신환상담팀** 윤영 **마취과** 김홍연, 마취과(암), 이경주 **비뇨의학과외래** 강수연 **산부인과외래** 내성은 **심장내과외래** 박성의 **수술팀** 이경아 **안과외래** 김아름, 황현아 **종양내과외래** 김혜영, 종양내과외래 **인공신장실** 강민지, 고아영 **통원치료센터** 통원치료센터 **통증센터외래** 서미나 **호흡기내과외래** 변예슬, 천은진

진료지원부 I **VIP검진센터** 곽경애 **물리치료팀** 김상우, 심성보 **방사선종양학팀** 문재근, 채희훈, 최희송 **진단검사의학팀** 김도은 **치과외래** 안수빈

행정부 I **보안팀** 김태이 **영양팀** 영양팀 **재난방재팀** 유영신, 장경오, 재난방재팀

가천대학교, 통합 10주년 '대학통합 성공모델'로 주목

'5년 내 국내 10대, 10년 내 글로벌 100대 대학 진입' 비전 선포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통합 10주년을 맞아 5월 3일 대학 비전타워 스타덤광장 특설무대에서 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5년 내 국내 10대 대학, 10년 내 글로벌 100대 대학 도약' (2027 TOP 10, Global TOP 100)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길여 총장을 비롯해 송석형 가천학원 이사장과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송성근 가천대 총동문회장, 가천대 길병원 김양우 원장, 이순재 가천대 석좌교수(배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통합 10주년 경과보고, 총장 격려사, 대학발전 기념포상,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연기예술학과 학생들의 뮤지컬 갈라쇼, 기악과 학생들의 4중주공연, 가천대 출신 가수 펀치의 공연, 이화선작가의 캘리그라피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성과 전시회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 가천 북페스티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관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한마음페스티벌 등이 부대행사로 4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통합 10주년 기념 시민초청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이 3일과 4일 예음홀 무대에 올랐다. '이웃사랑, 학교사랑 바자회'도 열렸으며 기증물품 판매수익금 전액은 성남지역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가천대는 2006년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2007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통합에 이어 2012년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가 통합하는 세 번의 통합을 통해 사실상 4개 대학의 그랜드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학통합으로 성남에 글로벌캠퍼스, 인천에 메디컬캠퍼스, 두 캠퍼스를 운영하며 의대와 약대, 한의대를 비롯해 14개 단과대학, 66개학과(전공)에 21,928

명(대학원생 포함)이 재학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며 대학통합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이후 10년간 673명의 우수한 교수를 뽑고 파격적인 연구지원 정책으로 국제저명학술지(SCI급/SCOPUS) 실적(2021년 대학정보공시 캠퍼스 합산 기준)에서 전임교원 1인당 논문환산 편수 0.6792를 기록, 국내 158개 사립대학 중 8위에 올랐다. 환산편수도 전체 사립대학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연구역량 강화로 올해 교외연구비 1,000억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2020년 국내 최초로 학부에 입학정원 150명의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한데 이어 작년 차세대반도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보안, 스마트시티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올해는 입학정원 50명의 배터리공학과도 신설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2015년에 이어 작년 과기부 주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1,2단계 사업 연속 선정,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 등 정부 주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길여총장, "창업지원 등으로 '학생성공시대' 만들겠다"

캠퍼스교육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가천관과 AI공학관, 의과대학, 제 2,3 학생생활관(기숙사)을 신축했으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쉬면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카페형 휴게공간 등을 곳곳에 만들어 학생들이 캠퍼스라이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과 함께 미국 하와이에 개관한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는 지금까지 2천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해 현지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했다. 인바운드 국제화로 학부 1,928명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도 총 2,961명이 재학 중이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지난 10년이 대학통합을 통해 명문대학 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그동안의 성과에 기반해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라며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창업지원, 첨단학과 신설, 계약학과 확대, 교육방법의 혁신을 강화해 '학생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다 창간호 소장 가천박물관
한국 잡지 120년 창간 역사 담은 도록 '창간호(創刊號)' 발간

가천대 길병원의 가족 '가천문화재단'이 국내 최초로 한국 잡지 120년의 창간 역사를 담은 도록 '시대를 읽는 창, 창간호(創刊號)'를 발간했다. 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박물관에서 모아온 2만여 점의 창간호는 국내 최다 창간호 소장으로 1997년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전국 최대 창간호 소장처 '가천박물관', 국내 최초 '창간호 도록' 발간 120년의 한국 잡지 창간 역사 담은 364점의 희귀본 공개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995년 설립한 가천박물관에 그 전부터 모아오던 창간호와 몇몇 기증자들이 기증한 창간호를 모아 창간호실을 열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창간호를 수집하다보니, 어느새 소장 창간호가 2만점을 넘어섰다.

잡지 창간호를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창간호 도록을 준비해왔다.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만657점의 창간호 중 대한제국 시기부터 1979년 사이에 창간된 귀중본 364점을 엄선했다.

도록에는 잡지가 창간된 시대적 배경을 비롯해 잡지의 성격과 주요내용, 창간 의미를 담았다. 창간호만을 모아 도록으로 발간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잡지, 언론, 역사, 교육계 등 관련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출판학회 전문적 학술연구... 연구 성과 발표

가천박물관은 문화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창간호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해 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창간호 내부의 자료들까지 제공해 전문적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산물 중 하나로 지난 5월 28일에는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잡지 창간호의 학술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한국출판학회 제41회 정기학술대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지난 2월 가천박물관과 한국출판학회(회장 노병성)가 MOU를 맺고 10여명의 학자가 4개월간 진행한 학술연구 결과를 전국 400여명의 한국출판학회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발표했다.

가천문화재단 윤성태 이사장은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창간호에는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굴곡들을 헤쳐 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번 도록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간호를 수집하여 가천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이길여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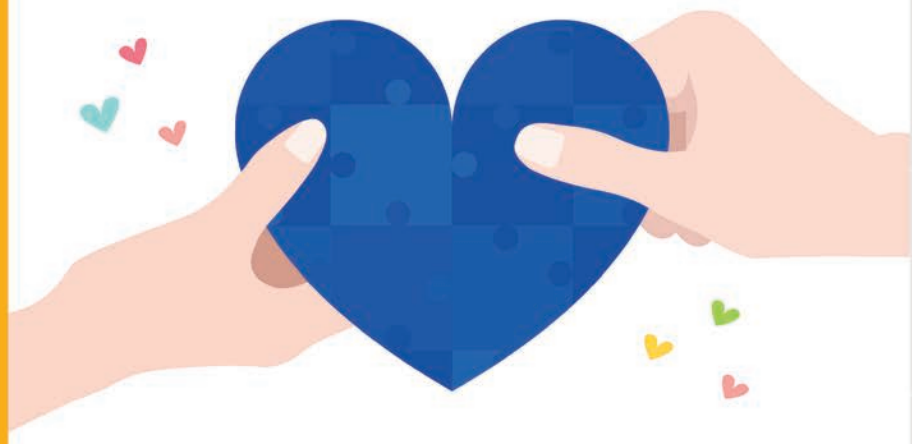
기부는 사랑입니다

황모(74)씨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전쟁 중 어머니와 남한으로 피난 와, 어머니는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했고, 그 역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구두닦이 등 허드렛일을 하며 일찌감치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힘겨운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생활도 순탄치 않아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죽어라 일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되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믿을 것은 건강한 몸 밖에 없었는데, 돌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조금씩 찾아온 지병들로 일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협심증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그를 괴롭혔고 조금이라도 걸으면 숨이 차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매달 50만원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던 중, 어느날 약을 잘못 복용해 약 뚜껑을 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받아 제거했지만, 일흔을 넘긴 나이, 각종 기저질환으로 인해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들과 연락이 돼 아들이 보호자로서 아버지의 병환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물려받은 아들 또한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아들에게 치료비 등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도움받을 가족도, 모아놓은 치료비도 없어 병원비 걱정에 막연해 하던 그. 가천대 길병원 사회사업팀은 환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국가 제도를 이용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후원 단체의 도움도 받게 됐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생명나눔 수기공모전 개최



6월 25일(토) 10:00~16:00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천대 길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 '길병원TV'를 통해 실시간 시청가능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참여대상	가천대 길병원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수혜자 또는 장기기증을 한 기증자 가족 등 감사편지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모든 분
공모내용	① 장기이식 수술 전후 경험담(수필) ②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한 희망편지 ③ 기증자에게 드리는 감사편지
참여혜택	**1등** 30만원 상당의 상품권(1명) **2등** 20만원 상당의 상품권(1명) **3등** 10만원 상당의 상품권(1명) *수기 제출자에게 선착순으로 1만원 기프티콘 제공
참여방법	**이 메 일** organ@gilhospital.com *이름, 연락처 게재 필수 **방문접수** 가천대 길병원 본관 2층 장기이식센터
결과발표	6월 30일 목요일(개별통보)

문의 (032)460-3688

모바일 소식지 바로가기 ▶